

지난 30일 노천극장에서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
생회장 및 제7대 총여학생회
장 선거2차 유세에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
심은 이제까지 50~60% 사

학생회 초석이될 우리의 한표

이의 투표율을 비추어 볼때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 그 후보자들의 역량
및 선거공약들을 정리하여
지상유세를 기획한다.
(편집자註)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지상 유세

“4반세기, 힘찬도약 희망으로
밝아오는 동용문의 새아침이 있습니다”

기호 1번

□ 공 약 □



정: 천준호
(시학·4)



부: 권재철
(형학·4)

□ 약 력 □
1970. 서울출생
1989. 서울 대원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사
학과 입학
1991. 제23대 문리대 사회부장
역임.
1992. 제24대 문리대 학생회장
역임.
현재. 제25대 경희대학교 총학생
회 총학생회장 임후보.

□ 약 력 □
1970. 전남 담양 출생.
1989.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
학과 입학
1991.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생회
장 역임.
1992. 제24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역임.
현재. 제25대 경희대학교 총학
생회 부총학생회장 임후보.

총 학생 회장

“그 질기고 젊은 미래의 시작”

기호 2번

□ 공 약 □



정: 정제혁
(경제·3)



부: 김기수
(철학·3)

□ 약 력 □
1971. 전남 순천 출생.
1990. 서울 남양고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제
학과 입학
경희대학 경제학과 과학생
회 기획부장 역임.
1992. 제24대 경영대 학생회 부
학생회장 역임.
현재. 제25대 경희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임후보.

□ 약 력 □
1970. 전남 광주 출생.
1989. 광주 전남고 졸업.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철
학과 입학
1991. 철학과 사회부장 역임.
1992.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경
희대총회 학생추진위원회의
위원 역임.
현재. 제25대 경희대학교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임후보.

총 여 학생 회장

“사랑하고 실천하는
여학생회를 만들어 봅시다”



정: 윤해선
(생물·3)



부: 이경선
(시학·4)

□ 약 력 □
1970. 전북 순창 출생
1989. 서울 영파고교 졸업
1990. 경희대학교 문리과 대학
생물학과 입학
1991. 생물학과 학생회장 권한대
행 역임
1992. 생물학과 학생회장 역임
현재. 제7대 경희대학교 총여학
생회 총여학생회장 임후보

□ 약 력 □
1969. 서울 충성
1989. 서울 연평고교 졸업
1990.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사
학과 입학
1991. 제55대 문리대 여학생회장
역임
1992. 제6대 총여학생회 기획부
장 역임
현재. 제7대 경희대학교 총여학
생회 부총학생회장 임후보

□ 공 약 □

1. 여학생들의 공동체 문화형성
—생활체육의 개발 보급
2. 여학생들의 안전한 학내 환경 조성
—가르침 중생, 소풍시간 연장
3. 조국과 사회의 주인으로 서는 여학생
—취업지원 철거운동 전개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양심과 준법의 우선 수위단(?)”

대선으로 외면당한 교육

“총통한 교육자들이 이끌어왔고, 현재
도 교육만을 위한 애쓰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통한 단체를 이끌고 가는분들이
모두 총통한 일만하지 교단에 함께 서있다
가 해와 교단을 떠난 선생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맑은 한바탕도 하지
않습다. 후와 총통은 다르지만 어
라를 잃고 총통한 거리를 헤매는 전교
교사들의 격정을 읽은 교직원들이
안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의 현실을 읽으며 격정을 더욱
강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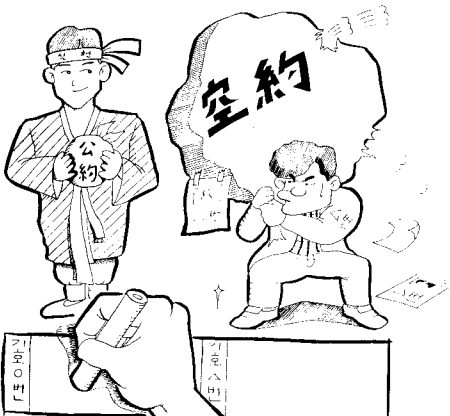
교육을 둘러싼 아담 박모의원의 차
이가 높았다. 그러나 의외로 박모의원은
교육의 사투리로 ‘나 안합니까?’ 한다.
그런 교육자의 외면이 해와교사로
를 잃고 떠돌던 때가 있었다. 눈물
을 흘렸다.

“이제는 진솔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과장과 포장속에
커져가는 불신의 벽

선거제마다 수없이 뿌려지는 전단 가
는 곳곳마다 널려 있는 공약들 선거
당시 학생들에게 무척임하게 남발된
공약이 실제 사업속에서 실현되지 못
할때 학생들의 ‘불신의 벽’은 커져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공정
선거로 ‘정의의 실천의 장’인 대학을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대 학 주 보 사



거울명학 미국가정가주
영어연수
장소: St. George, Utah
Points of Interests
Grand Canyon, Zion, Bryce,
Indian Village, Phoenix, Tucson,
San Diego, Tijuana, Los Angeles,
Sea World, Disneyland, Universal
Studio
Recreation
Golf, Horseback riding, Bowling,
Shooting gun, Skiing, etc
기간: 1993년 1월 4일 ~ 1월 30일
회 비: 약 2,200,000원
연락처
동서외국어학원 967-1291, 969-0055
상일항동 734-3134
미국인 영어회화
신입생 모집
수업시간 6:30 ~ 7:30
7:30 ~ 8:30
9:30 ~ 10:30
12:30 ~ 13:30
17:00 ~ 18:00
19:00 ~ 20:00
수업료 8주 10만원
연락처 969-0055, 967-1291, 969-1188
동서외국어학원